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21세기 먹구름' 불법으로 거둬내자

유토피아인가, 재앙의 시대인가. 눈앞에 성큼 다가선 21세기가 '축복의 천년'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오늘날의 과보는 어쩌면 21세기에는 '고통의 그림자'로 인류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많은 동서양의 학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 희망 속엔 불교가 있다. 팔만사천의 법문은 중생의 모든 현실고(現實苦)를 제거하고 해탈과 평화를 실현시키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새 기획으로 월 1회 '불교는 새 천년의 희망'을 주제로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을 마련하고, 21세기 인류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기획시리즈에서는 환경, 자원고갈, 빈곤, 기아 등 시급한 현안 외에 정보화사회, 교육, 전쟁, 마약, 인권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진단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프롤로그

50세 된 이씨가 사는 곳은 초고속인터넷에 화상통신, 온라인 홈쇼핑 등 최첨단 정보통신시설이 갖춰져 있는 인텔리전트 아파트. '불편'이란 단어는 잊은지 오래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모든 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적어도 집안에서만은 천국을 꿈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엘리뇨와 라니뇨가 이웃집 아프리카를 삼키고 있다는 소식이 TV화면과 컴퓨터를 채운다. 인도 캘커타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다는 소식도 나타난다. 크고 작은 분쟁과 마약, 매춘, 계층간의 갈등 등 지구촌 곳곳의 상황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큰딸이 미혼모가 된지도 벌써 2년전 일이다. 하지만 성문란은 문제거리도 아니다. 마피아 뺨치는 수준의 청소년 폭력으로 아이를 집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거리를 메운 버림받은 노인들은 첨단문명사회를 비웃는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끔은 폭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치관? 그것은 구시대 유물이 된지 오래다. 과도한 편리로 인한 극단적 이기주의는 인간성 부재현상을 부르고 있다. 지금의 한 달은 20세기의 5년쯤 된다. 그렇게 변하다보니 생각할 여유가 없다. 아니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20세기 말에 태어난 이씨는 이런 변화에 가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단지 느끼기만 하라'(Just Feel)는 상품광고에 익숙해진 것처럼 진지한 사색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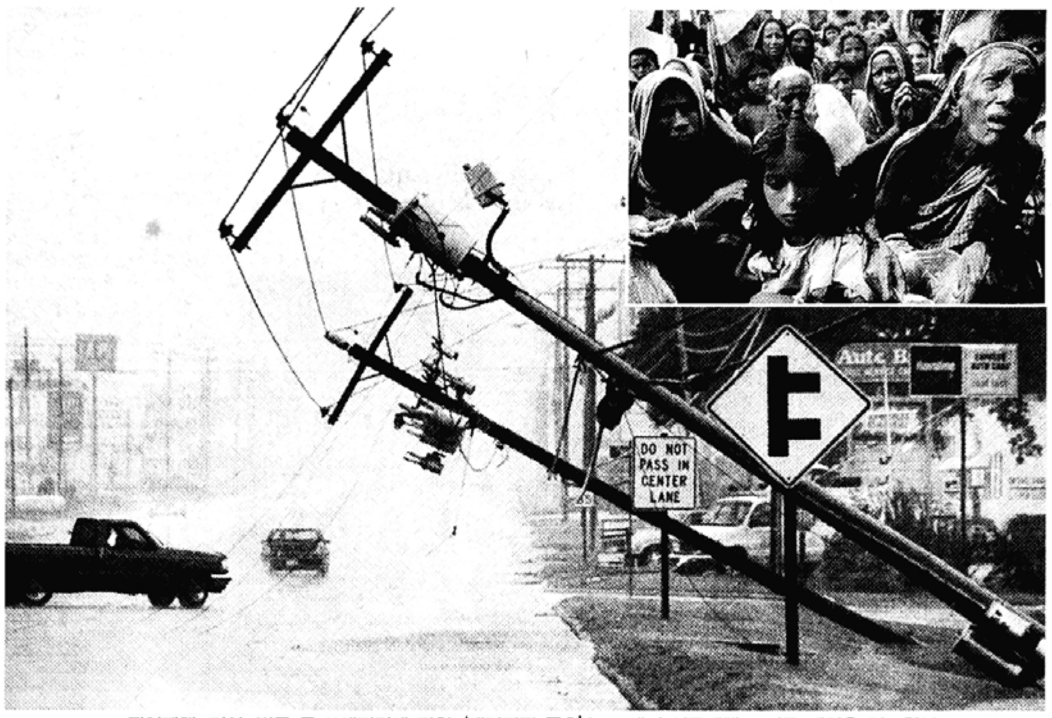
보내고 오직 편리함과 쾌락만을 낳는다. 그러다보니 자연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된다.

환경문제가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영국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세기 지구의 평균온도는 1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래 최대치인 3℃ 상승하고 해수면은 평균 21㎝ 상승해 바닷가 대도시들을 위협할 것이다. 세계자연보호연맹(WCU)과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는 몇년 안에 멸종할 동식물로 적어도 3만1천5백여종을 꼽았다. 남벌과 기상이변으로 숲이 사라져 가고 어족자원은 남획으로 고갈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지구는 끝내 인간의 생존도 거부할 것이다.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50년마다 평균 30억씩 늘어가는 인구문제와 자원고갈은 필연적으로 식량난을 초래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금도 40개국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적 환경감시단체인 월드워치는 2015년에 약 8억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배급체계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1천8백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21세기에 먹고 사는 일은 그야말로 '사투(死鬪)'가 될 수 밖에 없다.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인류의 소망으로 이뤄진 생명공학도 '유전자 오염'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또 에이즈와 암이 정복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병으로 인류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연재해, 기아, 빈곤 등 20세기말에 닥친 '세기말적 증후'는 21세기 인류에게 또다른 재앙을 경고한다.

자원고갈·기상이변·기아로 인류위기
不二사상·연기 가르침 대책마련 열쇠

인류는 21세기의 어느 날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밀레니엄 시대'. 과연 21세기는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재앙의 시대인가.

세계의 21세기에 대한 견해는 낙관과 비관이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은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다.

다니엘 벨이 '후기산업사회'라 명명 이른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은 무엇보다도 과학과 첨단 정보에 의해 고속으로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띠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내와 국제의 구분을 없애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21세기는 곧 다원화된 정보사회로 개성과 다원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자유와 문명에의 방황에 따른 문명의 본질적 위기의 시대로 보는 시각도 많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정신문명의 파괴를 부른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자비와 사랑을 무덤으로

20세기말의 사회적 상황은 21세기를 어둡게 전망하는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청소년, 인권, 교육,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갈등 등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바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류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듯 불확실성과 격변이 예고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많은 불교학자들은 불교야말로 21세기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염된 환경, 바닥나는 식량, 정신의 황폐화, 사회문제 등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교는 탐욕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저것이 있다'는 연기사상은 지구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욕심이 없으면 나쁜 과보도 없는 것,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오듯이 연기법은 바로 인류의 행위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원인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연기사상. 단순하지만 인류에게는 지고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가르침인 화엄사상은 또 어떤가. 모든 세계를 이원적 대립이 없는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보니 자연과 내가 하나요,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런 가운데에는 욕심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곧 불이(不二)요, 조화의 가르침이다.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의 존엄성을 인정하니 갈등이 있을리 없다. 이런 가르침 아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그들은 믿는다. 자기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물의 올바른 인식을 지향하는 선불교 정신 역시 무아(無我)와 공(空)의 가르침을 통해 21세기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서구 학자들도 '길은 동쪽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 불교를 21세기의 희망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교가 제시하는 가르침이 인류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결집사회' '인간단절' 전망 상충

석학이 본 21세기 패러다임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새로운 인류문명,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기라고 전망한다.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맥루언은 "미래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전자적으로 결집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앨빈 토플러는 "지식에 대한 지배 능력을 갖춘 엘리트들이 통제에 바탕을 둔 전통적 엘리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조셉나이는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갖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계 석학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희망과 우려가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정치학자 로스노는 "지구촌 개념이 심화되면서 모든 인류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사해동포적' 정치로 발전할 것"이라고 희망에 찬 견해를 보였다.

반면 정보학자 와이젠붐은 "정보사회의 뒷면에 숨겨진 '인간 단절'의 슬픈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21세기를 원시적 인간으로의 퇴행의 시대"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정부의 〈서기2000년의 지구〉 보고서는 "환경오염으로 50년이내에 지구상 생물종의 1/4이 멸종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회학자 마틴과 슈만은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인류의 1/5 정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입될 뿐 나머지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화와 정보사회화에 따른 변화는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류의 삶을 강하게 규제해 왔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두율교수(독일 뮌스터대학 사회철학)는 〈21세기와의 대화〉에서 "'전환기'를 뜻하는 'epoch'에는 '정지'의 의미가 있다"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전망이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품었던 사고와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을 해야 하며, 전환기의 상황을 항상 잊지 않는 긴장감과 주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472-3100
팩스 (0343)472-2746

● 국내지원 ●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 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2428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아산지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049번지 13통 Tel : 0418-544-146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Tel : 052-244-0884, 243-1687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427-8008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1-242-6638~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744-1321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1-259-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번지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648-1455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31-284-1771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0812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